

파우스트의 1막은 늙은 파우스트의 삶을 조명하는 데에 집중한다. 늙은 파우스트의 서재를 비추는 작은 핀조명, 서재를 가득 채운 책들, 책상을 무겁게 짓누르는 종이 뭉치들, 순수히 학식만을 욕망하며 파우스트를 찾아오는 제자들. 이 모든 미장센들이 파우스트가 느꼈을 삶의 무게를 강조한다. 삶과 인간에 대한 회의에 빠져 실의를 느끼던 파우스트에게 달콤한 유혹이 찾아온다. 메피스토는 파우스트에게 쾌락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며 손을 내민다. 파우스트의 심장소리같은, 뚝뚝거리는 소리가 공연장을 크게 울리며 관객들에게 긴장감을 유발한다. 그리고 마침내, 파우스트는 악마의 손을 잡아 버린다. 그 후 파우스트는 자신을 가뒀온 모든 족쇄를 벗어던진 듯이 쾌락만을 좇는다. 심지어는 더 강렬한 쾌락을 갖기 위해, 파우스트는 마녀의 묘약을 마시고 젊은 모습을 되찾는다.

2막은 내용적, 무대효과적인 측면에서 1막과 상반된 전개를 가져간다. 젊음을 되찾은 파우스트는 쾌락을 추구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다. 그러던 와중에 그레첸이라는 소녀를 만나고 진실한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파우스트는 주저하고, 그레첸을 두고 떠난다. 그리고는 더 저속한 쾌락을 욕망한다. 심지어는 그 쾌락을 존속하기 위해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무대의 구성 역시 그런 파우스트의 의식을 철저히 반영한다. 정적인 분위기와 무채색의 의상 및 무대세트를 보였던 1막과 달리, 2막에서는 네온사인처럼 현란한 조명과 빨간 소품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반면 그레첸은 아이를 낳고 죽었다는 소문에 휘말려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었다. 파우스트는 순수히 그레첸을 사랑했기에,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하고 그녀를 구하려 간다. 그러나 그레첸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고, 도무지 함께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결국 파우스트는 그녀와 함께 죽는 것이 아니라, 메피스토의 손을 잡고 떠나는 것을 선택한다.

나는 이 연극을 통해 처음으로 파우스트를 접했다. 이 작품에 대한 배경지식이 전혀 없었기에, 파우스트의 내용을 모르는 나에겐 모든 것들이 어려웠다. 그레첸이라는 인물의 상징, 구원이 가지는 의미 따위가 더욱 그러했다. 그런데도 자꾸만 생각이 났다. 이해하고 싶었다. 관극 후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나는 파우스트의 내용을 거시적으로 생각해 보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석하려 하자, 이 내용이 우리의 삶과 결부되어 떠오르기 시작했다.

파우스트는 500여 년 전의 작품이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학생들은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스스로를 가둔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에게 장래희망이란,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되느냐’에 대한 것이다. 이 차이는 우리의 사고를 시사한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보다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가 더 중요한 우리 사회는 학생들을 그저 독서실에 가둘 뿐이다. 독서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사유를 확장하는 것은 차순위이다. 소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대학에 가기 위해 학생들은 가뒀진 삶에 순순히 순응한다. 그렇게 좋은 대학에 가고 나면 다시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스스로를 가두고 다시 또 가둔다. 이 순환은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사람들 역시 이런 삶에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최근 방송된 EBS의 <교육격차>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교육을 자녀에게 다시 받도록 하고 싶냐는 질문에 참가자 중 누구도 ‘예’를 선택하지 않았다. 원수의 자식에게도 이 교육을 받게 하고 싶지 않다고 답한 참가자도 있었다. 참으로 역설적이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행복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데, 우리는 우리 사회의 교육풍조에서 행복을 느끼지도 않으면서도 이를 견딘다. 이 모든 게 더 잘 살기 위해서라

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이 2023년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관적 행복도는 OECD 38개국 중 34위에 그쳤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을까. 악마의 손을 잡은 파우스토마냥, 무작정 쾌락을 쫓는다면 행복할까? 그런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 물론 단언할 수는 없다. 선과 악은 완벽한 이분이 불가능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물을 칼로 벨 수 없듯이, 선과 악 역시 그렇다. 행복한 삶의 모습 역시 각 개인마다 모두 다른 모양을 가질 것이다. 누군가는 사람을 돕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여길 것이고,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버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여길 것이다. 정답은 없다. 이 모든 삶들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사람은 모두 다른 쾌락을 가진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장 가까운 메피스토는, 다시 말해 악마는 우리의 마음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악마가 쾌락을 속삭인다고 해도, 그 모든 쾌락을 악이라고 칭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공부를 해야하는데 게임을 했다고 하여 우리는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은 사회가 정한 규범 안에서, 그리고 스스로가 정한 기준 안에서 쾌락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다.

우리는 점점 인간적인 형질을 외면하려고 한다. 때때로 이들은 우리를 좌절하게도 하고, 울게도 하며,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가두고 채찍질 하는 데에 익숙한 나머지, 우리는 우리의 감정들을 돌보지 않으려 한다. 이들을 그저 우리 삶의 방해물로 취급한다. 인간적인 형질에 대한 외면은 결국 우리가 행복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조차 차단한다.

모두가 멈추지 않고 앞만 보며 달려가느라 바쁜 우리 사회에서, 계속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 행복한 삶인가?’라는 물음이라고 생각한다. 높은 청년 및 노년 자살률, 저출산 등 많은 사회 문제는 사실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음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개개인이 자신만의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지 깊게 사유할 수 있어야 각종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 포석을 놓을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을 위한 사유를 위해선 인문학이 필수적이다. 의학, 법학, 공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최근엔 ‘문송합니다’(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인문학이 무시받고 있다. 인문학은 취업 등에서 효용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그러한 신조어가 생겨났다. 그러나 인문학은 인간의 삶에 효용이 있다. 인간의 삶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힘은 고전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고전을 읽고 사유하며 삶에 대한 배움을 얻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시간이 흘러도 고전 작품들이 각광받는 이유이다. 바로 그들이 인간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한다 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이성과 감정, 선과 악, 행복 추구 같은 것들 말이다.

현대적인 연출과 해석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연극 파우스트는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그리고 독어독문학과에 재학하는 나와 학우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을 것이다. 1학년, 여러모로 고민이 많은 와중에 ‘우리는 무엇을 공부하는가?’, ‘우리는 이를 왜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는 작품이었다. 나는 늙은 파우스트의 모습에서 행복을 억누른 채 살아가는 우리 사회 사람들을 보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젊은 파우스트의 모습에서 “과연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하는 고민으로 생각을 확장하였다. 이렇게 각자의 질문을 갖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힘, 고전이 가진 힘을 나는 몸소 체험하였다.

나는 독어독문학과에서 고전들을 배우며, 내가 살고 싶은 삶은 무엇인지, 나에게 행복이란 어떤 의미인지를 찾는 4년을 보내고 싶다. 성적을 높이는 데에만 급급했던 10대 시절을 지나, 나의 남은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지금 이 대학 생활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생각하

며 내 장래희망을 정하고 싶다.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장래희망 말이다. 이제 파우스트가 그랬듯이 나 역시 메피스토의 손을 잡고, 내 행복을, 내 쾌락을 찾아 나서려 한다.